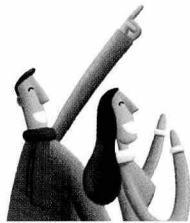


▶ 비전 2030, 바로 우리의 미래전략입니다.



비전 2030은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최초의 국가 장기전략입니다.

그동안 5개년 정도의 정부계획은 있었지만 20~30년 앞을 내다보는 정부계획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학계, 전문 연구기관, 정부부처 등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들어 비전2030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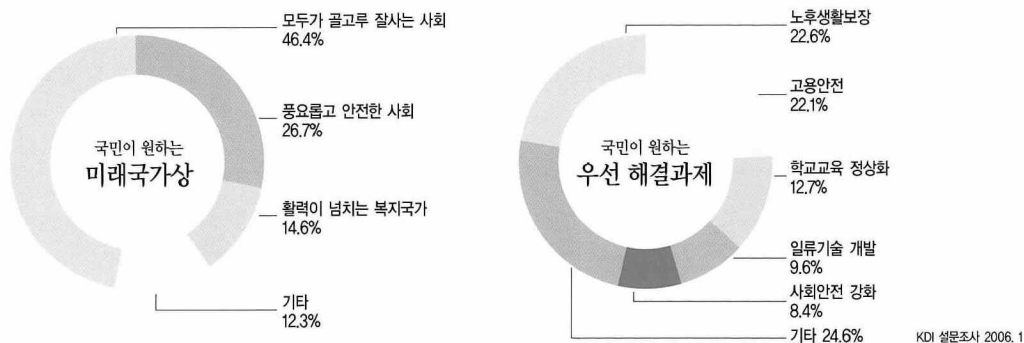
비전 2030 추진경위

▶ 오랜 기간 준비해왔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미래대비를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역동과 기회의 한국',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 장기비전에 대하여 논의해 왔으며, 그동안의 논의 결과들을 종합하고 보다 실천력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비전 2030 수립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 국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30여 차례의 토론회와 5차례의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06년 1월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미래상과 우선해결과제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최초로 실천력 있는 국가 장기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1년 이상에 걸쳐 작업한 결과, 그동안의 논의를 집대성하고 재정계획이 뒷받침된 실천력있는 정부보고서를 처음 마련하였습니다.

| 비전 2030 주요 추진과정 | |
|-----------------|--|
| 2005년 7월 | KDI, 조세연구원, 대학, 민간연구소 등의 전문가들로 작업반 구성 |
| 2005년 8월 이후 | 30여 차례의 토론회, 5차례의 세미나와 설문조사를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4차례에 걸친 범부처적 회의를 통해 협의·조정 |
| 2006년 8월 | 최초로 정부의 장기비전과 재정전략인 <비전 2030> 수립·발표 |

➔ 노화도 광산에서

때로는 낮은 듯이 높게
 따라 따라 아침을 여는 햇살에...
 손시린 겨울이 눈을 씻어 말하려 합니다.
 갈급한 한나절 높은 고독의 뜻과
 부여된 사명은 이랑이랑마다
 건조한 서러움들...

투명한 뿌리의 밑둥에서
 흐르는 강물로 삶의 소망은
 지금은 빈약하게 시작을 올려오는
 꽃웃음 일세라.

망울지기보다 한톨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는 인내속 기쁨을
 절실하게 터득한 겨울의 상흔들...

끝없는 미지의 질주와 현재의 긍정과 조화로
 봄날의 양지에 내일을 불러보리라.
 남의 기억과 성원속 체찍에
 계절의 구별없는 돌가루의 먼지를
 내마음 한구석 설경의 아름다움을 승화시켜
 꿈속에서 선녀와 목욕도 하며
 하얀 눈속에 쌓인 '산야의 그림'을
 그리리라...

〈출처 : 목포세관완도감시소장 김유진〉



➔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검사협회 소식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협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하는 선박검사기술협회의 홍보지입니다. 협회소식 및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게재코자 하오니 아래 사항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
- ※ 각종 검사제도개선 및 해양수산정보
- ※ 해양사고 예방활동 및 대책 등

☎ 연락처 : TEL 032-260-2226 / FAX 032-260-2315 / E-MAIL su7412@kst.or.kr

